



농림부 독일산 가금 등 수입금지 조치 해제

농림부는 2006년 10월 4일자로 독일산 가금 등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올해 초 독일내 칠면조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006.4.11일 독일산 가금, 초생추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최근 독일 측이 제공한 방역조치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일은 국제기준에 따른 방역조치를 시행하였고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HPAI 청정국 지위를 재획득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일산 가금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였다.

제 4차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 회의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 4차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 회의가 개최되었

다. 연구내용 발표에서는 항생제 무사료급여방안에 대해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강화순 이사, 항생제 절감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물약품협회 김종호 차장, 항생제 내성균 조사방안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 정석찬 세균과장,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지난 2005년 양계용 항생 항균제 사용량은 309톤으로 전축종에 사용된 항생 항균제의 21%를 차지하였고, 양축농가의 전체 항생제 사용량 중 60%가 양축농가 단위에서 사용하여 자가 배합농가 단위의 약품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근원적인 문제로 항생제의 중복과 과다 사용으로 인해 양축농가 단위에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항생제 사료사용으로 농장주의 의식전환과 축산시설 및 환경개선, 만성소모성 질환의 근절과 항생제 대체 물질의 개발이 선결과제로 논의되었다. 또한 항생제 수요 감소를 위해 질병예방을 할 수 있는 사양환경 개선과 항생제 보조요법제 개발을 추진하고, 항생제 잔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 전문 수의사를 두고,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을 준수하며 출하전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 외 잔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축가의 휴약기간 준수와 잔류검사 및 처벌방법 등을 강화하는 방법을 내세웠다.

가금질병연구회 추계 학술세미나 개최

가금질병연구회는 지난 18일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2006년도 추계 가금질병연구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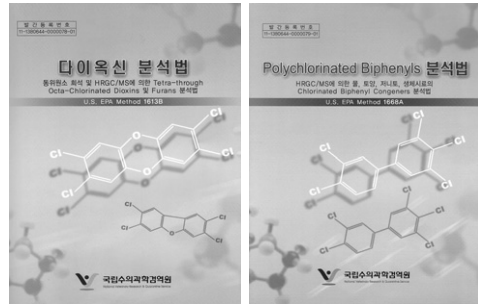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경수 원장(동두천 바이엘 가축병원)이 'EDS 국내발병사례'를, 송치용 원장(보람동물병원)이 '산란실용계의 마렉병 발병사례'를, 장형관 교수(전북대)가 '최근 마렉병 발병 및 연구동향'을, 최강석 연구관(수과원)이 '시판백신에 의한 최근 유행 뉴캐슬병의 예방효과'를, 김종택 상무(천하제일사료)가 '양계농장에서의 HACCP'를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김동욱 수의사 무관(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이 '최근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에 대해 특별 강의가 이어졌다.

강경수 원장은 그동안 10여년간 발생이 없던 EDS의 출현이 양계업계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으며, 장형관 교수는 마렉이 종양으로 발전하여 닭에게 피해를 주는 확률은 극히 적으나 우리나라에서 발생사례가 많은 것은 방역상 큰 허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강석 연구관은 ND 근절을 위해 백신 탓을 하기 보다는 농장에 맞는 적절한 접종방법이 최선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다이옥신 및 PCBs 분석법 번역서 발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미국 환경



보호청(U.S. EPA)의 다이옥신 및 PCBs 분석법인 Method 1613과 Method 1668의 번역본을 발간 하였다. 이들 번역본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독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한 다이옥신 17종과 폴리염화비페닐 12종의 분석법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분석법의 각 시험과정, 즉 시료의 추출, 농축 및 정제 그리고 사용 물질들의 안전성 및 폐기물관리 등의 내용은 시험실뿐만 아니라 교육용이나 참고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어 다이옥신 등을 분석하는 유관기관과 학계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식품의날 기념

식품산업 발전방안 세미나



식품산업 발전방안 세미나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 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FAO한국협회, (사)세계농정연구원, 농수축산신문이 주최하고 농림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지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제1주제 '농식품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안'을, 황수철 박사(농정연구센터)가 제2주제 'Food system 구축과 농식품 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발표직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상무 FAO 한국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식량안보에서 식품안전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농축수산 식품산업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토론에서 이항기 부회장(한국소비자연맹)은 이력추적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 확보와 인력 증설, 제도강화, 기록관리 누락사항 보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식품안전성 불감증과 관련 과잉보도에 대해서 정부, 식약청, 시민단체 등이 리스크 관리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공유하여 매스컴 보도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업체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입업체 등록제, 유해업체 처벌강화, 규격기준 설립, 보따리상 제재방안, 관리자 인프라 구축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덕화 교수(경상대)는 국내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GAP와 관련해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재양성을 필요하며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협

면세유 관리대장 정비

농협은 면세유의 원활한 공급과 부정유통 방

지를 위해 관리대장을 일제히 재정비키로 하고 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보유 농기계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면세유 관리대장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 농기계 보유현황을 신고받은 이후 농기계를 매매했거나 폐기함으로써 관리대장의 등록 내역과 실제 보유 현황이 다른 농가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연간 1만0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들로부터 보유 중인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 및 시설재배 현황, 양계사육 현황 등을 자진 신고받고, 이 중 8만0 이상 사용하는 농가는 사후에 현지 확인을 거친 뒤 면세유 공급량을 조정키로 했다. 또 현지 확인 결과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농기계는 관리대장에서 삭제하고, 1만0 이상 사용 농가 중에서도 모델을 선정,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성석 농협중앙회 유류팀장은 "이번 관리대장 정비는 그동안 변동된 사항을 확인해 면세유 공급량을 바로잡음으로써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량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또 면세유 부정 유통은 유류가 남을 때 발생하기 쉬운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추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사)동물약품협회

제 1회 축산인 골프대회 및 제7회 KAHPA컵 골프대회 개최

(사)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는 10월 30일(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88컨트리클럽에서

제 1회 축산인 골프대회 및 제7회 KAHPA컵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축산인 골프대회는 지난해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개최한 제6회 KAHPA컵 골프대회에 참석한 축산관련 단체장들의 발의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는데, 제1회 대회는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주최하고 매년 각 축산단체별로 번갈아 가며 주최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양돈·양계·사료·동물약품 등 축산 각 분야의 대표자 20여명이 참여하여 서로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더 나아가 업계간 이해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월 농장 방역실태 점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 9월 한달 동안 5,611호에 대해 농장방역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의심축이 발견되어 검사·의뢰한 건수는 101건이었다.

검사의뢰한 101건 가운데 소가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사산 증세를 보인 48건 가운데 소부루세라병 양성은 7건, 구제역으로 의심된 1건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이외에도 대장균감염증 3건과 로타바이러스감염증 1건 등 총15건의 질병이 확인되었다.

닭은 의심축 증상이 6건 발견되어 검사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감염증 2건, 전염성기관지염 1건 등 총 5건의 질병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오리에서 패혈증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년 9월까지 주요전염병 검색실적은 연간계획 70만5천두

대비 61만5천두를 실시하여 87%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각 질병별 시료채취 두수는 구제역 7,910두, 소 부루세라병 251,813두, 돼지콜레라 항원·항체검사 139,291두, 돼지오제스키병 항체검사 144,032두, 산란계에 대한 닭뉴캐슬병 항체검사 72,130수를 시료채취 했다.

1. 질병의심축 예찰실적 및 결과(9월)

가. 닭

예 찰		검사결과		
증 상	건수	질 병	건수	이상없음
산란율 감소	1	대장균	1	
사료섭취 저하	1	IB	1	
폐사	1	마이코플라스마	1	
호흡기증상	1	마이코플라스마	1	
연란	1	살모넬라	1	
입식축 검사	1			1
계	6		5	1

나. 오리

예 찰		검사결과		
증 상	건수	질 병	건수	이상없음
폐사	1	오리 패혈증	1	

2. 시료채취 실적('06. 1~9월 누계)

구 분	뉴캐슬병(수)	
	계 획	실 적
경기	23,300	16,036
강원	4,900	3,894
충북	5,300	4,096
충남	11,100	8,769
전북	6,800	5,275
전남	6,900	5,081
경북	29,300	20,685
경남	10,600	7,235
제주	1,800	1,059
전국	100,000	72,130

축산연구소

국가 가축개량기관 간담회 및 체육대회 개최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지난 20일 성환 소재에 있는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 대강당 및 대운동장에서 국가 가축개량기관 간담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가축개량기관들이 함께 자리하며 현안협의 및 협력강화와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심신을 단련하고자 축산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 개량사업 및 개량기관 현안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후부터 대운동장에서 연합팀과 농협팀으로 나누어 축구 및 소프트 볼 경기를 가지며 친선을 다졌다. 한편 체육대회에 앞서 분회 최준구 회장이 참석하여 축산발전을 위한 인사말이 있었다.

KISTOCK 추진위원회

KISTOCK 홍보단 VIV China 참가

내년에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KISTOCK 개최 준비 일환으로 홍보단을 구성해 VIV China에 지난 27일~29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참가하였다.

양계, 양돈, 한우, 낙농 축산단체 관계자와 축산관련업자들이 함께한 이번 방문에서 홍보단은 VIV China 행사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며 앞으로 있을 국내 국제박람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



였다. 한편 홍보단은 각부스를 방문하며 해외업체들의 국내 유치를 위해 KISTOCK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한국자조금연구원

육계자조금 해법찾기, 축산기자 좌담회



(사)한국자조금연구원(이사장 박영인)은 지난 24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육계자조금 해법찾기 축산기자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육계의무자조금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기자들은 농가교육문제, 계열사와 농가들의 갈등, 추진 3개단체 및 대위원회와의 의견 불일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 자조금법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오는 11월 21일을 전후하여 대위원총회가 개최되는 만큼 자조금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3개단체 및 대위원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의 발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